

'위험성 판단 리스트'로 신변보호 만전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 50% 미만 지난해 339건 접수·156건 검거... 오인 신고·혐의 부족 많아

지난 7월 '중학생 피살사건' 계기로 전국 첫 도입 경무관·총경 20명 격주마다 분석 회의 상황 점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당시 허술한 신변보호 조치로 못매를 맞았던 제주경찰이 개선책을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이인상 제주청 차장(경무관)의 주재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신변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격주마다 청문감사인권관, 112종합

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등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모든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가해자 위해 상황 ▷위험성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는 가해자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경찰청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46대를 제주에 추가로 보급했다. 중학생 피살사건 발생 16일 전에 피해자의 모친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사건 발생 다음날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에 신고되는 기능이 있다.

이인상 차장은 "제주지역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

응하겠다"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피살사건 보름여 후인 지난 8월 6일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신변보호 업무 총괄 ▷신변보호 전담인력 4명 배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의 내실화 ▷판사청 및 중간관리자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근 4년 동안 제주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제주에서 아동학대 신고 10건 중 5건 이상은 실제 검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91건, 2019년 313건, 2020년 339건에 이른다.

반면 신고 가운데 실제 검거가 이

뤄진 건수는 2018년 96건, 2019년 158건, 2020년 156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50%대를 밑돌았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혐의 부족, 허위·오인 신고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만 갔는데... 채용 때 '심층면접' 대상 경찰, 신규 채용 최종면접 전에 응시자 신원조회 오영훈 의원 "비인권적 대우... 채용 관행 개선을"

최종면접 전에 신원을 조회하는 경찰의 채용 절차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공무원 신규 채용 최종면접 전에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가 실시된다.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았던 기록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층적인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즉 면접관이 응시자를 보기도 전에 신원조회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층면접 대상자

는 2018년 902명, 2019년 428명, 2020년 529명, 올해 상반기 14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면접 시 수사 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면접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경찰청에 요구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검찰 수사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역시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준법성을 요구하는 직군임에도 최종면접 이후에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택시·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2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인해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가 통제돼 교통 혼잡을 빚었다.



한림항 참조기작업 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어린이들이 참조기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수상레저객 극적 구조 섬-섬 횡단 후 귀항 중 실종

수상오토바이로 섬과 섬을 횡단하려던 30대가 표류 중 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13분쯤 추자도-완도군 보길도 사이에서 수상오토바이 9척이 레저활동을 즐기다 보길도로 귀항하던 중 1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제주해경서는 같은날 오후 5시쯤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여기에 타고 있던 A(30대·전남 나주)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에따라 추자도 민간자율구조선 4척을 더 섬의 후 합동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5시30분쯤 추자도 부속섬인 횡간도 북동쪽 4.4km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탈수증상 및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제주지역 타이레놀 품귀현상 '여전'

약국 찾은 도민들 타이레놀 재고 없어 헛걸음 10월말까지 백신 접종률 70%... 심화 불가피

"타이레놀은 없고 같은 계열 해열 진통제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제주지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진통제의 대표 제품인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로터리, 제주시청대학로, 탐동, 용담동 등 약국 십수여곳을 확인한 결과, 타이레놀 재고가 없어 구할 수 없었다.

이날 타이레놀을 사러 약국에 온 손님들은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입고 날짜를 묻는

질문에 직원들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입고일을 예상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A약국 관계자는 "손님 10명 중 4~5명이 타이레놀을 찾지만 물량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며 "왜 없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 설명하느라 애를 먹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지만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백신접종 이후 나타나는 발열·근육통에 대해 타이레놀 복용을 권고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구매에 나서며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최근 제주도가 위드코로나를 위해 10월말까지 전 도민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목표로 잡고 접종에 나서면서 품귀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제주도내 타이레놀 수급량은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라며 "타이레놀 재고 확보에 힘쓰는 한편,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해도 괜찮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 반려동물 등록여부 집중 단속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독려했다.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여부 등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60건(내장칩 1181건·외장칩 379건)의 신규등록 및 277건의 변경 신고가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기존 등록 소유자의 SNS로 소유자 변경이나 인적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등 다수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여부 및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5만원에서부터 3차에는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기견 및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할인 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10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기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충출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서리 사거리 삼거리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취득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27(3개월, 240시간)
교육시간 09:00~13:00(평일 주간, 일일 4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내용 전기이론 & 실기, 태양광이론 & 실기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10(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취기산업직종 종사자 포함)
교육내용 전기설비이론, 전기설비이론 및 실습(전기(산업) 기사 수준)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영, 김*현, 옥*환, 이*석, 정*원, 최*영, 최*(홍)영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서로 81 (삼도동) 중앙역경 경향동, 진영마트 맞은편(064)725-5545 (http://www.jejuvns.co.k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립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